

어린이 홀린 '티니핑' 뽀글래... 편의점빵·랜덤박스 '완판'

스타필드 벌룬 페스티벌

관람 20분 제한에도 입장객 넘쳐 최대 7m, 인기 캐릭터 풍선 장식 캐릭터 사진1장 촬영에 1시간 줄서 11번가 완구 전체 판매량 2위 기록

이번 어린이날의 주인공은 '캐치! 티니핑'이었다.

각 e커머스의 완구 선물 랭킹 집계 1위를 휩쓴 것은 물론, 대대적인 캐치 티니핑 테마 페스티벌을 꾸린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점은 '대박'을 터뜨렸다.

캐치티니핑은 SAMG 엔터테인먼트 삼지애니메이션의 3D애니메이션이다. 이모션 왕국에 사는 소녀 로미가 지구로 떨어진 마음의 요정 '티니핑'을 찾아 지구로 와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내용이다. 분홍색 일색인 애니메이션이지만 여아, 남아 관계 없이 모두 좋아한다. 90개 이상에 이르는 캐릭터 수와 다양한 완구로 여러개를 모으고자 하는 어린이들이 많아 어린이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등골핑' '파산핑'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까지 붙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실내 복합



스타필드 하남의 제3회 스타필드 벌룬 페스티벌 전경. 어린이날 당일인 5일, 스타필드는 캐치 티니핑을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신세계프라퍼티

쇼핑몰 등으로 나들이객이 몰린 지난 5일, SNS에는 경기도 스타필드의 상황이 빠르게 공유됐다. 스타필드를 가득 메운 인파는 보기만 해도 허를 내두를 수준이었다.

스타필드 하남·안성·고양과 스타필드 시티 명지는 7일까지 캐치 티니핑을 대대적으로 내세워 '제3회 스타필드 벌룬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최대 7m에 이르는 인기 티니핑 캐릭터들의 풍선을 장식하고 캐치 티니핑 주제곡을 부르는

싱어롱 이벤트와 기념 사진 촬영 이벤트 등도 함께 진행했다.

티니핑 월드 입장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관람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 것은 물론, 티니핑 캐릭터와 사진 1장을 찍는 촬영 이벤트를 위해 1시간 넘게 줄을 서는 등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스타필드는 7일까지 행사를 진행한 후 방문객을 집계할 예정으로, 업계서는 백만명 이상 방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하남 스타필드에 방문한 초등생

학부모 김경수씨는 "주차를 하는 데에 한 시간, 에어벌룬과 사진을 찍는데 3시간을 썼다"며 "워낙 인기있다 보니 비가 오지 않았어도 사람은 많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선물로도 티니핑의 인기는 대단했다. 지난 2일 SAMG 엔터테인먼트는 롯데마트와 함께 어린이날 시즌 한정판으로 출시한 '캐치! 티니핑 랜덤박스' 1차 공급 물량이 완판되면서 2차 공급을 시작했다. 지난달 8일 발매를 시작한 랜덤박스는 일부 지점에서는 판매 시작 일주일만에 품절이 됐다. 티니핑 캐릭터 여름 시즌 의류도 큰 인기를 끌며 지난달 일매출 1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11번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완구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캐치 티니핑 완구 중 하나인 미스틱 하트왕이 전체 판매량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국민민짱'으로 불리는 유아 장난감 피셔프라이스 클래식 러닝휴으로, 사실상 어린이날 선물로는 1위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어린이날 선물인 레고도 따돌렸다.

인육한 11번가 장난감 MD는 "최근 장난감 제조사들도 단순한 신제품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다양한 캐릭터를 활

용하고 있다"며 "특히 여아용 완구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층을 형성한 캐치 티니핑과 산리오의 인기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S25도 지난달 28일 티니핑셀 86종 중 하나가 든 캐치 티니핑 컬래버 빵 2종을 출시했다. GS25 공식 인스타그램의 신상품 출시 게시글은 통상 댓글이 10개를 넘지 않았지만 티니핑 빵 출시 게시글은 댓글이 80여 개에 이르렀다. 한 네티즌은 댓글로 "포켓몬빵 있어요 대신 이제 티니핑 빵 있어요? 편들순이들 고통 받겠다"고 쓰기도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아동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세가 무섭다"며 "특히 티니핑은 계속해서 에피소드가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인기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SAMG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매출 683억원, 영업손실 3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78% 늘었으나 사업확장을 위해 비용을 투자하면서 손실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의 76%인 522억원이 티니핑을 포함한 MD 매출액으로 2022년 247억원 대비 111% 증가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대웅제약 "전세계 당뇨병환자 삶의 질 향상"

엔블로 런칭 심포지엄 '엔블로드' 첫 국산 SGLT-2 억제제 의의 소개

대웅제약이 국산 36호 신약 '엔블로(Envlo)'의 출시를 기념해 가진 심포지엄에 3000여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성황리에 끝났다고 7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3일 장충동 서울 신라호텔과 대구 라온제나에서 엔블로 런칭 심포지엄 '엔블로드'를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현장 200여명, 온라인 2800여명의 의료진이 참가했다.

대웅제약이 지난 1일 국내에 출시한 2형 당뇨병 치료제 신약 엔블로정은 SGLT-2 억제제 계열이다. SGLT-2 억제제 계열은 혈당강하 효과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부터 체중 감량, 혈압 강하 효과도 있어 글로벌에서 차세대 치료제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엔블로 런칭 심포지엄 '엔블로드'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고대안암병원의 김신곤 교수가 엔블로의 주요 임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엔블로드는 대웅제약이 출시한 2형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Envlo)'와 길의 의미하는 '로드(Road)'의 합성어다. 한국 최초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인 엔블로가 전 세계 당뇨병 환

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로 기획됐다.

먼저, 서울 엔블로드 심포지엄에선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수 교수가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로 주목 받는 SGLT-2 억제제 계열의 치료제를 소개하고, 첫 국산 SGLT-2 억제제 신약 엔블로의 개발 및 차세대 계열로서의 의의를 소개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고대안암병원의 김신곤 교수가 엔블로의 3상 임상 중 병용요법과 더불어 하위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웅제약 이창재 대표는 "국산 신약이 국내 환자는 물론 전 세계 당뇨병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글로벌 진출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부산엑스더스카이 1층 아기상어 포토존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폴무원푸드엔컬처

"부산에서 '핑크퐁 아기상어' 만나보세요"

폴무원푸드엔컬처-더핑크퐁컴퍼니 엑스더스카이서 브랜드 캠페인

폴무원의푸드서비스 전문 기업 폴무원푸드엔컬처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엑스더스카이'에서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 더핑크퐁컴퍼니의 캐릭터 '핑크퐁 아기상어(아기상어)'와 함께 'Baby Shark Sky Station(아하 하늘 정거장)'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브랜드 캠페인은 더핑크퐁컴퍼니의 아기상어 캐릭터를 특별한 오프라

인 공간에서 부산 최초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글로벌 인기 캐릭터 아기상어와 함께 탁 트인 바다와 하늘을 보며 일상의 고민을 해소하고, 희망과 에너지를 전하는 스토리텔링이 접목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폴무원푸드엔컬처가 운영하는 부산 엑스더스카이는 엘시티 랜드마크타워 동 98~100층에 위치한 전망대 시설로, 지난 12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촌설령탕 보냉백 등 굿즈 선보여

설령탕 프랜차이즈 브랜드 '한촌설령탕'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굿즈를 출시, 한정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보인 굿즈는 넉넉한 수납공간에 음식 등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냉백으로 가족들과 나들이 및 야외 활동할 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한촌설령탕은 이번 보냉백 굿즈를 매장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9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굿즈만 따로 구매를 원할 경우 19900원에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창립 22주년 NS홈쇼핑 "새로운 도전할 것"

4년 만에 오프라인 기념행사 진행

NS홈쇼핑은 창립 22주년(5월 7일)을 맞아 4일 경기도 판교 사옥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조항목 대표는 20년과 15년, 10년 장기근속자를 포상하고 임직원에게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22살 NS에게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며 "인생도 비즈니스도 끝없는 도전의 여정이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축하의 뜻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지금 홈쇼핑 비즈니스는 디지털 환경에 걸맞게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하는 시기"라며 "두려움 없이 뛰어들고 나아가면 그곳에서 우리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격려했다.

NS홈쇼핑 조항목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임직원에게 ▲모두가 끝까지 도전하고 실행하겠다는 의지, ▲조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당부했다.

/신원선 기자

이대뇌혈관병원, 365일·24시간 진료개시

초대 병원장에 신경과 송태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오는 22일 서울시 강서구 소재 이대서울병원 3층에 이대뇌혈관병원의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초대 병원장에는 뇌혈관질환, 두통 명의로 널리 알려진 신경과 송태진 교수가 임명됐다.

전문센터들도 구축됐다. 이대뇌혈관병원 뇌경색센터장에는 신경과 박무석

교수, 뇌출혈센터장에는 신경외과 조동영 교수, 뇌혈관정위치료센터장에는 방사선종양학과 박영희 교수, 뇌재활센터장에는 재활의학과 양서연 교수 등이 임명됐다. 이대뇌혈관병원은 전문의들이 24시간, 365일 상주하며 뇌혈관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간 유기적 협진으로 운영된다.

/이세경 기자